

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 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300천 Km ²	G D P	2,847억 달러 (2014년)
인구	1억 명 (2014년)	1 인 당 GDP	2,845달러 (2014년)
정치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페소(Peso)
대외정책	친서방 노선	환율(달러당)	44.40 (2014년 평균)

- 필리핀은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으며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서국가임.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금, 구리, 니켈, 크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및 업무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그러나, 수출구조가 특정국 및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또한, 취약한 제조업기반 개선, 부정부패 척결, 인프라 구축은 향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주요 과제임.
- 지역 및 계층간의 심한 소득격차, 이슬람 반군과의 오랜 분쟁으로 사회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최근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
- 자유당의 베니그노 아키노 현 대통령은 양호한 경제성장세 유지 등으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여당연합이 승리하여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보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f
경제성장률	3.7	6.7	7.1	6.1	6.2
재정수지 / GDP	-2.0	-2.4	-1.5	-0.6	-1.5
소비자물가상승률	4.7	3.2	3.0	4.2	1.9

자료: IMF, EIU.

□ 민간소비 증가와 인프라투자 확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6.2% 전망

- 2013년에 선거 관련 지출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등에 힘입어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4년에는 2013년 11월 하이엔 태풍으로 인한 농업 및 제조업 부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6.1%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 2015년에 들어 중국경기가 둔화되고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민간소비 증가, 민관협력(PPP) 사업 본격화에 따른 인프라투자 확대에 의해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1.5%로 증가 예상

-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경기부양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감소하며 1.5%를 기록함.
- 2014년에는 선거 실시와 하이엔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동 비중이 0.6%로 하락함.
- 그러나, 2015년에는 인프라사업 재개, 하이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에 의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상승률 1.9%로 하락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 안정으로 2.9%를 시현함.
- 2014년에는 2013년 하이엔 태풍 피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4.2%까지 상승함.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화로 인하여 1.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따른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지속

- 필리핀은 과거 수입대체, 농업·산림자원 수출 위주의 산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짐.
- 이에 따라 자본재, 소비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8년부터 공산품과 함께 원유, 식료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재해복구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로 2015년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수준과 비슷한 16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특정국에 편중된 수출구조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일본, 미국, 중국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동 국가들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임.
 - 2014년 기준 3개국에 대한 필리핀 총수출 비중이 49.6%에 달하고, 이중 일본이 22.5%로 가장 크며 이어 미국 14.1%, 중국 13.0% 순임.
- 한편, 필리핀은 세계 4대 해외인력 송출국으로서 2014년말 기준 해외 근로자가 인구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특히,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이 GDP의 9.1% 수준으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은 외환보유고 유지, 국내소비 촉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장기적인 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60% 이상의 해외근로자가 중동 지역에 파견되어 있어 중동 국가의 경기와 정세에도 영향을 크게 받음.

□ 만연된 부패 및 행정 비효율에 따른 인프라개발 저해

- 과거 정부의 관심 부족과 부정부패로 인한 인프라투자 지연으로 인프라 수준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세계경제포럼의 2014~15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프라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91위로, 말레이시아(25위), 인도네시아(56위), 베트남(81위) 등 인근 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175개 평가대상국 중 85위로, 2012년(105위)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 세계경제포럼은 필리핀의 사업환경 악화 3대 요인으로 부정부패와 정부의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를 지목
- 한편, 아키노 정부는 부패척결, 재정적자 축소와 함께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 개발을 3대 경제발전 정책으로 설정하고,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을 확대하여 인프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개발잠재력 보유

- 필리핀은 세계 5대 광물 부국으로, 금, 구리, 니켈, 크롬, 알루미늄의 추정 매장량이 세계 5위권 수준임. 또한 개발허가권 부여면적이 광물 매장지역의 2%에 불과하여 향후 개발잠재력이 큼.
- 대법원의 1995년 광업법 합헌 판결(2004년)로 외국인의 자원개발투자가 허용되었음. 다만, 취약한 인프라로 인한 높은 개발비용,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특히, 토지 소유, 벌목, 수자원 이용 등 부수적 권리는 여전히 필리핀 국적자와 기업만이 보유할 수 있어 외국인의 자원개발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1위 수준의 BPO 산업환경 유지

-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저렴한 인건비,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콜센터 등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Tholons의 100대 세계 BPO지역 순위에 따르면, 필리핀은 인도의 벵갈루루(1위) 및 뭄바이(2위)에 이어 마닐라와 세부 지역이 각각 3위와 8위를 차지함.
 - ※ 콜센터 부문에서는 2010년에 이미 인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
 - 필리핀 내 BPO 분야 종사자는 2015년 1월 현재 10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2016년까지 ‘매출액 250억 달러 및 고용 1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필리핀 정부는 수년 내에 BPO 산업 매출액이 전체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
- 필리핀 정부는 향후 BPO 산업의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 권리보호 법안(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 등) 마련, 야간노동 허용 등을 위한 노동법 개정, 기업인적자원 역량 배양을 위한 역량평가제도 도입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폐지, 투자안 심의기간 단축, 중점투자유치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절차 간소화 등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2014년 7월 필리핀 국내 은행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제한을 폐지하는 등 금융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함.
 - 또한, 필리핀 투자위원회(BOI)는 중점투자유치 산업*(IPP)에 대해 법인세 면세(3~6년), 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감독, 기술, 고문 등)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 제조업(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화학, 제지용 펄프, 철강), 농·어업(코코넛, 커피, 양계, 사탕수수), 창조산업·지식기반서비스(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산업폐기물), 보건·의료, 주택, 에너지 등

※ 세계은행은 'Doing Business 2016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기업경영여건을 189개 평가대상국중 103위로 부여하였음. 또한, 세계경제포럼의 '2014~15 글로벌 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쟁력은 144개 평가대상국중 52위로, 3년 연속 순위가 상승

- 이에 2014년말 기준 대 필리핀 외국인투자는 투자여건 개선, 견고한 경제성장세 유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66%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함.
- 2010~13년간 연평균 외국인투자가 약 25억 달러인 점을 감안 시, 2014년의 외국인투자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분석됨.

□ 재정수입 확충 및 정부채무구조 개선에 성공

- 필리핀 정부는 주류세와 담배세 신설 등을 통해 세수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예산편성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지출 누수를 최소화하는 개혁 조치를 시행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함.
- 또한, 글로벌 저금리 기조를 적극 활용한 차환정책을 통해 정부부채의 평균만기와 신규 차입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2011년의 약 21년 및 5.8%에서 2013년에 약 25년 및 0.6%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함.

3. 대외거래

□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전망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BPO 산업과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수지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인해, 2014년에도 경상수지 흑자세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2015년 경상수지 흑자 및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BPO 산업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수지 확대 등에 힘입어, 각각 전년 대비 17.8% 증가한 149억 달러 및 5.0%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액 소폭 증가 예상

- 2014년 외환보유액은 양호한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721억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반등하며 외환보유액이 전년 대비 1.1% 소폭 증가한 7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낮은 수준

- 총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GDP 대비 외채비중도 26.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이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에 7.8%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f
경 상 수 지	5,643	6,949	11,384	12,646	14,901
경상수지 / GDP	2.5	2.8	4.2	4.4	5.0
상 품 수 지	-20,428	-18,926	-17,662	-15,851	-15,664
수 출	38,277	46,384	44,512	47,758	43,938
수 입	58,705	65,310	62,174	63,609	59,602
외 환 보 유 액	65,700	75,689	75,689	72,056	72,924
총 외 채 잔 액	78,573	79,893	78,445	77,682	77,979
총외채잔액 / GDP	35.1	31.9	28.8	27.3	26.2
D. S. R.	12.5	7.0	7.8	6.1	7.8

자료: IMF, IFS, OECD 및 EIU.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총선 및 지방선거 승리로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 유지

- 2010년 5월 당선된 자유당(Liberal Party)의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대통령은 양호한 경제성장세와 지속적인 부패청산 노력에 힘입어 지지세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임.
- 여당연합이 2013년 5월 실시된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상하원 모두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아키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 상존

- 2013년말 기준으로 국민의 54%가 일평균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등 빈곤층이 많고 중산층이 미약한 실정임.
 - 특히, 일부 재벌가문이 GDP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과실이 부유층에게 집중됨.
- 아울러, 빈곤층의 60% 이상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간 소득격차도 큰 편으로, 빈부격차로 인한 범죄 증가 및 폭동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존재

- 이슬람 지역인 민다나오* 지역에서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모로이슬람 해방전선(MILF, '79년 MNLF에서 분리),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 사프(Abu Sayyaf), 방사모르 이슬람자유전사(BIFF) 등 이슬람 단체가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한 대정부 무장 투쟁을 지속하고 있음.
 - *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이 이주하면서 이슬람 세력과 필리핀 정부간 무력 대치상태가 지속
 - 필리핀 정부는 MNLF('96년)에 이어 2014년 1월 MILF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이슬람단체의 테러활동이나 정부군과의 무력충돌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최근 평화협상 재개, 핵심 지도부 체포 등으로 공산반군인 신인민군(NPA)의 테러 가능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테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으로 우호적 관계 지속

- 일본은 필리핀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대 필리핀 ODA 중 50%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08년)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양국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라는 외교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중국 영유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에 합의('13. 1월)하는 등 외교적 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음.

□ 미국과는 경제, 군사,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미국은 필리핀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국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 체류 필리핀인은 300만 명, 필리핀 체류 미국인은 10만 명에 달함.
- 양국은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에 따라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슬람세력 진압 지원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이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고조에 따라 아키노 정부가 '대미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하여, 2014년 4월 미국의 필리핀 군사기지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이 체결됨.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관계 악화

- 중국은 필리핀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경제 관계는 밀접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됨.
 - * 중국은 남중국해가 과거 역사 자료에 의거하여 자국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은 UN해양법협약에 의거 과거 사실을 토대로 다른 국가에 대한 현재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반박
 - 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상분쟁에 대해 UN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15. 7월)한 상태이나, 중국은 이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등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84년, '87년, '89년, '91년, '94년)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함.
 - 2015년 3월말 현재 OECD 회원국의 ECA 앞 연체액도 없어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 ※ 필리핀은 2009년 이후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

- 2014년말 기준 총외채 규모 및 외환보유액이 각각 777억 달러, 72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이 2011년 121.3%에서 2015년 95.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도 27.3%로 낮아짐.
- 아울러,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81.1%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구조가 양호하고, D.S.R도 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채관리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사료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물가 안정과 외환보유액 증가, 은행산업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필리핀 국가신용등급을 2013년 6월 3등급으로 상향조정 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 Moody's, Fitch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경상수지 흑자,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각각 BBB, Baa3, BBB-의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S&P는 2013년 5월에 이어 2014년 5월에도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현재 BBB 등급을 부여함.
 - Moody's도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Baa2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Fitch는 2013년 3월 BBB-로 한 단계 상향조정 후 올해 10월에 등급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5. 11)	C1 (2014. 7)
OECD	3등급 (2015. 6.)	3등급 (2014. 6.)
S&P	BBB (2014. 5.)	BBB- (2013. 5.)
Moody's	Baa2 (2014. 12.)	Baa3 (2013. 10.)
Fitch	BBB- (2015. 9.)	BBB- (2015. 3.)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EXIM)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49년 3월 3일(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

□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69년, '94년 및 '09년 개정), 무역협정('78년), 경제기술협력협정('85년), 이종과세방지협약('86년), 투자보호협정('94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협정('03년), 무상원조 기본협정('11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필리핀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9	주요품목
수 출	8,211	8,783	10,032	6,247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등
수 입	3,284	3,706	3,331	2,421	반도체, 곡식류, 동제품, 원유 등
합 계	11,495	12,489	13,363	8,668	-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25억 달러를 기록함. 2014년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4.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전년보다 감소하여 교역규모가 134억 달러를 시현함.

※ 올해 1~8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0% 감소한 62억 달러를 기록중

- 한편,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제16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6월말 기준 1,469건, 32억 달러(누계 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필리핀은 2014년 전년의 하이엔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인해 6.1%의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2015년에도 민간소비 증가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이엔 태풍 피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4.2%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안정화 되어 1.9%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임.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의 송금, BPO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한편,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임.
- 베니그노 아키노 현 대통령은 양호한 경제성장세 유지 및 지속적인 부패 청산 노력과 함께, 2013년 5월 실시된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 중임. 다만, 빈부격차 확대,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불안 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 거시경제지표 및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동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도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 대외지급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박종국 (☎02-6255-5704)

E-mail: parkjk@koreaexim.go.kr